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배포일시	2018. 2. 28.(수) 총 5매 (본문 3매)	
담당 부서	도시경제과	담 당 자	• 과장 이정희, 사무관 지봉현, 주무관 김학희 • ☎ (044)201-3737, 201-4846	
보 도 일 시		2018년 2월 28일(수) 13: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제주 등 12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지 선정 교통·에너지 등 도시 인프라에 정보통신 기술 결합...안전·관리 효율성 향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법·교통 등 단절된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2018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대상지로 서울시·제주도 등 12개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 (선정 12개 지자체) 서울시, 제주도,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경산시, 고창군, 마포구, 서초구

-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공모에는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비 12억 원 중 6억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교통·환경·에너지·수자원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활용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로 고가의 외국산 플랫폼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됐다.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방법, 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D)로 개발(‘09~’13년, 100억 원)

- 통합 플랫폼이 지자체에 적용되면 방법·방재·교통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도시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다 편리한 ‘스마트시티’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 또한, 국토부가 경찰청·소방청 등과 협력하여 '16년부터 개발한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도 함께 보급된다.

* (5대 연계 서비스) ①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출동 지원, ④긴급재난상황 지원, ⑤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 지원

○ 이는 112, 119 등 국가 안전재난 체계가 개별 운용되어 긴급 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 예) 상황 발생 시 핵심 수단인 폐쇄회로 텔레비전(공공기관 85만 대)는 대부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찰·소방 당국과의 협업체계가 부재하여 활용되지 못함.

○ 지자체와 112, 119,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인 등) 보호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되어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단축 등 국민안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 개요】

◆ **납치·강도·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긴급 출동 시 스마트시티 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현장 영상, 범인 도주 경로 등을 제공('15. 7. 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 (현재) 112센터는 신고자 진술에 의존 → (개선) 경찰관에게 “눈”을 제공

◆ **화재·구조·구급** 등 상황 시,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 소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골든타임 확보('15. 9, 국토부-안전처 업무협약)

* (현재)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 애로 등으로 골든타임 확보 곤란 → (개선) 현장 영상, 이면도로 폭, 주차정보, 위험 시설물 현황 등 정보 제공

◆ **아동·치매환자** 등이 위급상황 시, 통신사에서 사진, 위치정보 등을 제공 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현장 상황 파악 후 신속한 도움 제공('16. 7, 국토부-통신사 업무협약)

□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보급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조성하고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 서울시 등 광역 대도시와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도시는 과기정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3~4개의 지자체를 묶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적용하는 기반 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정보망을 클라우드 센터로 연계하여 통합 플랫폼을 통해 112·119·재난센터 등에서 활용('17. 11, 국토부-과기정통부-서울시 업무협약)

- 국토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8에서는 미래기술로 불리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5세대 이동통신(5G) 등이 짧은 시간에 상용화되어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되고, 음성인식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다.”라며,

- 향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홈 등이 도시 내에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을 서두르겠다.”라고 말했다.

- * 붙임: 1.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및 5대 연계서비스 1부.
2.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예시도) 1부.



참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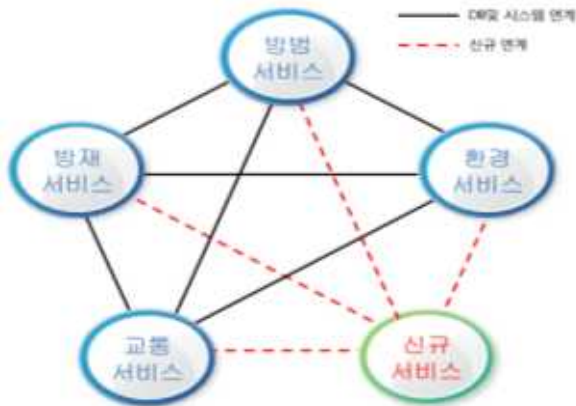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예시도)

(AS-IS) 개별 서비스 제공



- 정보간 연계 없이, 각 분야별 필요에 따른 “단일 센서 - 단일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효과적인 도시문제 대응이 어려움

(AS-IS) 개별 연결



(TO-BE) 통합플랫폼 활용



(TO-BE) 연계 서비스 제공

